

박태원의 『천변풍경』 속 ‘소문’으로 읽는 근대의 풍경

엄 숙 희 (전남대)

< 목 차 >

- | | |
|--------------------|----------------------|
| 1. 일상 풍경으로서의 ‘소문’ | 3. 불안의 유포와 집단적 내면 투사 |
| 2. 소문의 이합집산지, ‘천변’ | 4. 나가며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당대의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천변풍경』 속 ‘소문’의 양상에 주목하여 그것이 보여주는 근대의 풍경을 읽어보는 데 있다. 박태원의 『천변풍경』 속 생활상은 다채롭다. 그만큼 천변에는 항상 갖가지 소문이 무성하다. 『천변풍경』 속에서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유포되는 갖가지 소문들은 당시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소문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어디에서나 시작되고 퍼져나간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생성된 소문들은 인간을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따라서 소문은 시대적 연관관계 속에서 해석된다. 소문의 성격이 이와 같다고 했을 때 『천변풍경』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소문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소설 속의 소문은 천변 주변의 인물들 사이에서 생성되고 유포되는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당시 천변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기층민들의 사유체계와 그 사유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당시의 불확실한 시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천변풍경』에서 유포되는 소문들도 단순한 이야기거리만은 아니게 된다.

그럴 때 「천변풍경」 속 소문의 풍경을 들여다보면 그 모습은 잔잔하지 않다. 「천변풍경」 속 대부분의 소문은 불행한 여인들이나 남성들의 불륜에 관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근대식 교육을 받은 남녀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소문은 기층민들의 삶과 대조되면서 그네들의 비극성을 부각시킨다. 이런 식으로 「천변풍경」에서 유포되고 있는 소문에는 근대의 도시 공간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불안한 근대인의 내면이 투영되어 있다.

주제어: 「천변풍경」, 박태원, 소문, 근대의 풍경, 집단적 내면투사, 불안

1. 일상 풍경으로서의 ‘소문’

박태원의 「천변풍경」에는 1930년대 서울 청계천변에 살고 있는 갖가지 인간 군상들의 일상이 다채롭게 그려지고 있다. 돈 많은 중인 남성들은 이제 근대식 이발소에서 머리를 다듬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다. 시골에서 상경한 가난한 여성들은 남의집살이를 하거나 카페의 여급으로 일하며 돈을 번다. 결혼 풍경도 달라졌다. 동경유학생과 신식여자가 자유연애를 하고 신식결혼을 한다. 그러는 한편에서는 가난한 기층민 여성들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들의 일상적인 폭력을 감내하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에 더해 남성들은 천변을 떠들썩하게 하는 온갖 추잡한 스캔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천변의 풍경은 다채롭다.

천변의 생활상이 다채로운 만큼 천변에는 항상 갖가지 소문이 무성하다. 가산을 탕진하고 귀향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 거리의 신사에 대한 소문, 하층민 여성들의 행실을 문제 삼는 소문, 바람을 피우는 남편들 때문에 고생하는 여인들에 관한 소문, 바람을 피면서도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 남성들의

추문 등이 난무하다. 소문의 성격이 다양한 만큼 소설 속에서 유포되는 소문의 대상 또한 다양하다. 소문을 주고받는 그네들의 처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가까운 이웃들이나 행실이 문제가 되는 여성들이 소문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그들과는 무관해 보이는 중인이나 상인 출신의 부르주아들이 소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천변풍경』에는 근대적 도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관한 온갖 소문들이 나돌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소설 속 소문의 양상들은 그 자체가 천변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풍경이 된다. 『천변풍경』 속에서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유포되는 갖가지 소문들은 당시의 세대를 반영하고 있다. 『천변풍경』 속 소문에는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흥미 있게 전달하는지가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되는 소문은 단순한 흥미위주의 이야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문은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어디에서나 시작되고 퍼져나간다.¹⁾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소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소문은 결코 개인의 사적인 의견 표출이 아닌,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며 집단현상이다. 정확히 말해 소문은 궁극적으로 의사소통 행위인 것이다.²⁾ 이러한 소문은 대개 모호하거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³⁾ 인간은 어떤 경우든 상황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사회적 동기를 지닌다. 대표적으로는 문화적으로 정의된 규범이 인간 행동의 준거로 작용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은 명쾌하게 맞아떨어지지 못하거나 그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때 개인은 집단 속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집단사고의 산물이 소문이

1) 니콜라스 디폰조/곽윤정 역, 『루머사회』, 흐름출판, 2012, 8쪽.

2) 위의 책, 56쪽.

3) 니콜라스 디폰조·프라산트 보르디아/신영환 역, 『루머심리학』, 한국산업훈련연구소, 2008, 25쪽. 여기서 말하는 모호한 상황이란 사건이 지니는 의미가 뚜렷하지 않고 중요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 사건이 어떤 효과를 미칠지 확실하지 않음을 말한다.(위의 책, 25쪽)

된다. 이렇다고 할 때 소문은 어떤 집단의 상태가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사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소문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감정을 부채질하면서 참여를 유발한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⁵⁾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생성된 소문들은 인간 자체가 그렇듯이 그냥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구성물로서 인간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⁶⁾ 따라서 소문은 시대적 연관관계 속에서 해석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특정한 사건과 하나의 주어진 상징적 체계 사이의 관계로서 그리고 사건으로서 소문은 소문이 생겨난 연관관계의 틀 내에서 비로소 그 의미를 얻기 때문이다.⁷⁾ 소문의 성격이 이와 같다고 했을 때 『천변풍경』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소문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소설 속의 소문은 천변 주변의 인물들 사이에서 생성되고 유포되는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당시 천변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기층민들의 사유체계와 그 사유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당시의 불확실한 시대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민시기 경성에 살고 있는 기층민들에게 포착된 당대의 소문의 대상은 무엇이며, 그 소문들의 양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 인지를 밝혀보는 작업은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천변풍경』이 세태소설이라는 측면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태소설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당대의 일상과 풍속을 세밀하게 잘 포착해서 보여주지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태소설은 “당대 사회의 윤리, 비윤리, 사상적 측면 등 인간들의 삶의 형태를 비롯한 사회의 반영체”⁸⁾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총체적 사회상은 세태소설이 취하고 있는 다양한 서사장

4) 위의 책, 25쪽.

5) 위의 책, 10쪽.

6) 한스 j. 노이바우어/박동자, 『소문의 역사』, 세종서적, 2001, 13쪽.

7) 위의 책, 15쪽.

8) 장영미, 『세태소설과 세계 인식 모색: 박태원의 『천변풍경』과 박완서의 『천변풍경』을 중심으로』, 『구보학회』 제9집, 2013, 272쪽.

치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럴 때 『천변풍경』에서 중요한 서사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소문’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기존 연구에서도 『천변풍경』의 소문에 주목한 연구로 손유경의 『‘소문’으로 다시 쓰는 박태원의 「천변풍경」론』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손유경은 『천변풍경』속 ‘소문’이 미학적 장치로 기능하며 소문의 ‘자기지시성’으로 문학의 자기반영성을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소문의 본성을 매개로 소문이 근대사회의 폐쇄적인 소통구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⁹⁾ 이런 시각은 작중 소문의 장치를 소문의 속성에 견주어 주로 기능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도 확인했듯이 소문은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면서 집단적 의사소통의 도구이며 집단의 심성구조 또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소재이다. 작중 소문의 의미는 단순하게 그 기능적 측면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작중의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서 유통되는 ‘소문’의 양상으로 당대인의 내면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 논문에서는 당대의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천변풍경』(1938, 박문서관) 속 ‘소문’의 양상에 주목하여 그것이 보여주는 근대의 풍경을 읽어보고자 한다.

2. 소문의 이합집산지, ‘천변’

도시의 공간구조는 생태학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근대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에 따라 도시공간은 인위적으로 구획된다. 이에 더해

9) 손유경, 『‘소문’으로 다시 쓰는 박태원의 「천변풍경」론』, 『박태원 문학 연구의 재인식』, 예음, 2010, 262쪽. 이 글에서 손유경은 작중에서 익명으로 발화되고 익명으로 소비되는 소문을 통해 봤을 때 『천변풍경』은 작중 인물들 간의 공동체적 친밀감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소통자들의 우정을 기반으로 하는 연대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면서 소문이 그런 근대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면서 진정한 소통과 관계맺음을 고민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930년대 경성의 경우는 식민정책에 의해 구획된 도시 공간의 성격 또한 지닌다. 1930년대 당시 경성거리는 일제에 의해 도심부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던 시기였다. 1, 2차에 걸친 시가지 계획령에 따라 홍수로 피해를 입은 도심 재정비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비교적 정비가 잘 된 한강 이남 지역은 일본인들의 공간으로, 정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겨진 한강 이북의 공간은 슬럼화 되어 조선 사람들의 공간으로 변했다.¹⁰⁾ 강북에 위치한 청계천변이 이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천변풍경』의 주요배경인 청계천변의 공간적 성격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작중에서 천변은 궁핍에 쫓겨 농촌에서 상경한 이들, 지독한 시집살이를 피해 상경한 여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카페로 내몰린 여급들, 돈벌이에 내몰린 아이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이들 하층민들은 천변의 중인이나 상인들의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남의집살이를 하거나 미숙련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주인집에서 쫓겨나가거나 돈벌이가 없으면 이들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야 한다. 이처럼 삶의 근거가 불안정한 이들로 채워진 천변의 풍경은 역시 불안정하고 항상 갖가지 사건들로 조용할 틈이 없다. 그렇게 1930년대 경성의 청계천변은 자본을 쫓아 누군가는 들어오고, 누군가는 자본에 쫓겨 떠나가야 하는 근대 도시의 냉혹한 일상을 보여준다.

이렇듯 근대적 도시의 일상을 보여주는 천변은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온갖 이야기들이 유통되는 소문의 공간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천변풍경』에서 소문이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주요 공간으로 빨래터가 나온다. 빨래터는 시내나 샘터에서 빨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곳으로, 예로부터 여인네들의 공간이었고 혼자가 아닌 여럿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여인들의 사랑방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서울에서도 개울마다 빨래터가 있었지만 그중 큰 빨래터로는 청계천 빨래터가 대표적이었다.¹¹⁾ 소설 속에서 청계천변 빨래터는 신산한

10) 김정현·김태영, 『소설 『천변풍경』 속에 나타난 1930년대 청계천 주변 서민생활 공간』,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구조계』 제27권 1호, 2007, 627쪽.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들이 온갖 수다를 풀어놓는 해소의 장이다.

정이월에 대독 터진다는 말이 있다. 탄은, 간간이 부는 천변 바람이 제법 쌀쌀하기는 하다. 그래도 이곳, 빨래터에는, 대낮에 별도 잘 들어, 물속에 잠근 빨래꾼들의 손도 과히들 시리지는 않은 모양이다. …(중략)… 주근깨투성이 얼굴에, 눈, 코, 입이 그의 몸매나 한가지로 모두 조그맣게 생긴 이뿐이 어머니가, 왜목(광목) 옷잇을 물에 흔들며, 옆에 앉은 빨래꾼들을 둘러보았다. …(중략)… 그보다는 한 십 년이나 젊은 듯, 갓 서른이나 그밖에는 더 안 되어 보이는 한 약국 집 귀돌어멈이 빨랫돌 위에 놓인 자회색 바지를 기운차게 방망이로 두드리며 되물었다. …(중략)… 지금 생각해보아도 어이가 없는 듯이, 빨래 흔들던 손을 멈춘 채, 입을 딱 벌리고 옆에 앉은 이의 얼굴을 쳐다보려니까, 그이 건너편으로 서너 사람째 앉은 얼금뱅이 칠성어멈이, …(중략)… 그리고 바른 손에 들었던 방망이를 왼손에 갈아들고는 한바탕 세계 두드리는 것을, 언제 왔는지 그들의 머리 위 천변 길에서, 우선 그 얼굴이 감때사납게 생긴 점룡이 어머니가 주춤하니 서서…(하략)…¹²⁾

정이월, 청계천변 빨래터의 풍경이다. 빨래터는 항상 남의집살이들을 하고 있는 이뿐이 엄마, 귀돌어멈, 칠성어멈, 점룡이 어머니 등의 수다로 흥성거린다. 빨래꾼들은 빨래터에 “빨래보다는 오히려 서로 자기네들의 그 독특한 지식을 교환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것이나 같이, 언제고 그들 사이에는 화제의 결핍을 보는 일이 없”¹³⁾이 이야기가 막힘이 없고 끊이지 않는다. 빨래터 여인들은 방망이를 힘차게 두드리며 남의집살이 하는 그녀들의 애환을 실컷 털어놓고, 주인집 어른들의 흥도 신나게 본다. 그러는 가운데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의 형태로 유통된다. 빨래를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주위들은 소문은 각 인물들에 의해 각자의 공간 속에서 재생산된다. 부푼 소문은 자가 증식하며 스스로 재생산한다. 그렇게 천변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문은 빨래터를 중심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급속하게 전파될 거라는 것이 『천변풍경』의 풍경에서 짐작된다.

11) 김정동, 『문학 속 우리도시기행』, 옛오늘, 2005, 187-188쪽.

12) 박태원, 『천변풍경』, 문학과지성사, 2005, 9-10쪽.

13) 위의 책, 99쪽.

한편 이 빨래터라는 공간은 성격상 하층민 여성들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빨래터에서 이뤄지는 그녀들의 이야기는 격이 없다. 서로 비슷한 처지의 인물들 사이에서 이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자신들의 속내를 편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남의 흉도 허물없이 볼 수 있는 곳이 빨래터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해주고 이해받을 수 있는 공간인 도심 속의 빨래터는 근대의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경험하기 힘든 스트레스 해소의 공간이자 치유의 공간이 된다. 더불어 이곳에서 유포되는 각종 소문의 양상은 1930년대 기층민중들의 심경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된다.

『천변풍경』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소문의 진원지는 이발소다. 고종의 단발령으로 상투를 잘랐던 사람들의 머리를 전문적으로 다듬거나 다시 머리를 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투를 틀어주기도 하면서 시작된 근대의 신종직종인 이발업은 1930년대 후반에는 남성중심의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게 된다.¹⁴⁾ 따라서 이발소는 도심에서 근대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된다.

민주사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숫제 덤수룩할 때는 그래도 좀 덜하던 것이, 이발사의 가위 소리에 따라 가지런히 쳐지는 머리에, 흰 털이 어찌 더 돋보이는 것만 같아, 그 마음이 좋지 않았다. …(중략)… 그는, 연해, 자기 머리 위에 가위를 놀리고 있는, 이제 스물대여섯이나 그밖에는 더 안 된 젊은 이발사의, 너무나 생기 있어 보이는 얼굴을, 일종 질투를 가져 바라보며…(중략)… 소년은 그곳에 앉아 바라볼 수 있는 바깥 풍경에, 결코, 권태를 느끼지 않는다. 손님이 벗어놓은 구두를 가지런히 놓고, 슬리퍼를 권하고, 담배 사러, 돈 바꾸러 잔심부름 다니고 그러는 이외에 그가 이발소에서 하는 일이란,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그것뿐으로, 이렇게 툴툴이 밖이라도 내다보지 않고는 이러한 곳에서, 누가 그저 밥만 얻어먹고 있겠느냐고, 그것은 좀 극단의 말이나, 하여튼, 그는 그렇게도 바깥 구경이 좋았다.¹⁵⁾

『천변풍경』 속 이발소 풍경이다. 작중에서처럼 이발소는 민주사와 포목전 주인 같은 천변 주변의 부유한 중인 남성들의 공간이다. 이발소는 빨래터와

14) 김정현·김태영, 앞의 논문, 627-628쪽.

15) 박태원, 앞의 책, 29-30쪽.

는 조금 성격이 다른 소문의 진원지이다. 빨래터에서의 소문이 그곳에 모인 여성들의 대화 속에서 오고가며 유통된 것이라면 이발소에서의 소문은 이발소 소년 재봉이의 일방적인 독백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남성들의 공간인 이발소지만 이곳에서 남성들은 흥성거리는 빨래터와는 달리 그들끼리 수다를 떨지 않는다. 서술상으로는 작중 이발소에서 남성들이 “기생 얘기, 여급 얘기, 갈보 얘기” 등을 하면서 공론을 벌인다고는 하지만 실상 그런 모습이 직접적으로 그려지고 있지는 않는다. 다만 손님으로 온 남성들은 거울 앞에 앉아서 사색을 하는가 하면, 가끔 재봉이가 유리창 너머로 천변을 바라보며 떠들어대는 소리에 대구를 하는 모습만 보인다. 즉, 이발소에서는 젊은 이발사 김서방과 재봉이가 주고받는 실없는 소리들만이 이어지는 식으로 의사소통으로서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단지 짐작으로만 이발소 또한 여성들의 빨래터처럼 나름의 해소의 공간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발소가 소문의 진원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이발소 소년 재봉이다. 재봉이의 관찰력은 다수의 여인들이 만들어내는 소문의 내용에 버금가는 것들을 알게 해준다.

“참, 그런데, 인석. 넌, 대체 어디서 그런 소문을 모두 일일이 알아 오니?”…
(중략)…”

“저 녀석은, 밤낮, 허라는 일은 안 허구서, 그저 새면으루 귀동냥만 땡긴답니다. 그래, 그렇게 잘 압죠.”¹⁶⁾

인용문을 보면 이발소 손님인 포목전 주인이 재봉이에게 “어디서 그런 소문을 모두 일일이 알아 오”냐고 물어볼 정도로 재봉이의 정보력은 대단하다. 이는 재봉이가 “밤낮, 허라는 일은 안 허구서, 그저 새면으루 귀동냥만 땡기”는 데 열을 올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소년은 천변에 거주하고 있는 중인 남성들과 관련된 소문을 비롯해 천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일들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중인남성들은 이발

16) 박태원, 앞의 책, 230쪽.

소에서 자연스럽게 소년 재봉이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천변의 소문을 듣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천변풍경」 속 천변이라는 공간이 근대의 다양한 소문의 대상을 목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특히 하층민들의 시선에 포착된 부르주아들의 삶의 행태들은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면서도 그들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또한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근대 속의 불안한 도시민의 삶 또한 그들을 돌아보게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근대인의 내면풍경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근대의 도시 공간 속에서 그들의 입을 통해 발화되는 ‘소문’이라는 점이다.

3. 불안의 유포와 집단적 내면 투사

근대사회는 서구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사회다. 기존의 봉건적인 가부장적 질서와 공동체적 가치관은 파괴되고 그 자리는 근대적 합리성과 시간관으로 대체된다. 기존 가치관이 해체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사람들은 낯선 근대와 조우한다. 이제 근대인들은 기계론적 시간관이 만들어내는 획일화된 시공간 속에서 개체화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강요받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근대의 폭력성은 개인들의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킨다. 「천변풍경」 속 소문에는 이처럼 근대적 도시공간으로 변모한 1930년대 경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안한 근대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3.1. 급진적 사회 변화와 부적응의 불안

1930년대 경성은 근대적 자본주의 도시로 변모해가는 곳이었다. 백화점, 극장, 다방이 들어서면서 경성의 외양은 서양식으로 변모해 갔고, 도로에도 근대적 교통수단이 왕래하면서 경성은 속도감 있는 도시로 변해갔다. 근대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성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지만 변화

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천변풍경』에 처음 등장하는 신전집의 몰락에 관한 소문도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때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신전집이 시대를 잘못 읽고 사업을 하는 바람에 망해서 낙향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빨래터에서 나온다.

“괜찮은 게 다 뭐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구요. 다른 애긴 그만두구래두, 한 십 년 전에 첩 하나 얻어, 그래두 전세루 집 한 채 얻어줬던 걸, 사오 년 전엔 사글세 집으로 옮겨 앉혀구 그제 그러겐 셋방이 됐다가, 이젠 아주 자기 집 안으로 끌어들이, 큰마누라허구 한집 살림을 시키구 있으니, 그것 한 가지 만 허드래두 벌써 알쫘 아니유? 게다가 지금 들어 있는 집이나 점방이나 모두 은행에 들어가 있는 데다, 그 밖에두 이곳저곳에 빚이 여러 천 환 되는 모양이니……”¹⁷⁾

“어떡하다 그러긴…… 그것도 다 말허자면 시절 탓이지, 그래 이십 년두 전에 장사를 시작해서 한 십 년 잘해먹던 것이, 그제 벌써 한 십 년 될까? 고무신이 생겨가지구 내남 죽힐 것 없이 모두들 싸구 편헌 통에 그것만 신으니, 그래 정신 마른신이 당최에 팔릴 까닭이 있어? 그걸 그 당시에 어떻게 정신을 좀 채려가지구서 무슨 도리든지 간에 생각해냈더라면 그래두 지금 저 지경은 안 됐을걸…(중략)…¹⁸⁾

그는, 갑자기, 굽힌 허리에 얼굴조차 앞으로 숙 내밀고, 한껏 낮은 음성으로
“그런데, 누구 얘길 들으니까 말야……”

하고 다음은 좀더 은근한 목소리로,

“그 권 영감이, 왜, 지난번에 강원도 춘천엔가 댕겨오지 않았수? 그제 거기다 집을 보러 갔던 거라는군 그래. 인제 윈 집안 식구가 모조리 그리 낙향을 할 모양이지.”

그는 자기 이야기에 거의 모든 빨래꾼들이 일하던 손을 멈추고, 놀라는 기색으로 자기 얼굴을 쳐다보는 것을, 일중 자랑 가득히 둘러보다가, 갑자기 또 눈살을 찌푸리고,

“하여튼 남의 일이나마, 그, 안되지 않았수? 그 양반이 원래가 서울 태생이라는데, 더구나 한참 당년에 남부럽지 않게 지내다가, 일조일석에 그만 그 꼴

17) 박태원, 앞의 책, 13쪽.

18) 위의 책, 14쪽.

이 되니…… 자기두 정신을 못 채리긴했지만 그래두 말허자면 시절 탓이지…
(하락)…19)

빨래터에서 신전집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이는 그 집안일을 맡아보고 있는 점룡이 어머니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빨래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더 극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점룡이 어머니는 신전집의 불행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지 못한 ‘시절 탓’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비친다. 부자들마저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 몰락해가는 이야기는 기층민들의 불안을 더욱 자극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천변풍경』은 많은 소문들 중에서도 부잣집이었던 신전집이 몰락했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이상과 같은 부정적인 소문은 긍정적인 소문보다 사람들이 더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과급력이 크다. 부정적인 소문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부정적인 소문이 외부의 위협에 대한 일차적인 방어선으로서 그 위협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호는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신호에 보다 더 민감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²⁰⁾ 부자도 망하게 하는 급변하는 시대는 가진 게 없는 기층민들에게는 더 불안을 가한다. 점룡이 어머니가 빨래터에서 신전집 얘기를 하는 행위도 불안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녀의 말하는 행위는 부잣집의 몰락을 지켜보는 불안을 공유함과 동시에 시대의 변화를 체감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더불어 점룡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의 적극적인 반응 또한 소문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라 이야기되는 소문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특정한 소문이 얘기되는 상황에는 그 소문을 소비하고 있는 이들의 심경 또한 반영되어 있다.

19) 박대원, 앞의 책, 14-15쪽.

20) 김현준, 『행복심리학』, 아름다운사람들, 2010, 21-22쪽. 공포는 위험이 잠복해 있다는 신호이고, 비애는 과거의 무엇인가를 잃은 상실감에서 곧 무엇인가를 잃을 것 같다는 신호이며, 분노는 누군가 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3.2. 일상적 폭력의 지속과 가정의 해체

『천변풍경』의 시공간적 배경은 당시 근대화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1930년대 경성이다. 하지만 『천변풍경』의 첫인상은 근대적 도시 공간의 모습과는 정반대이다. 청계천변 빨래터에서 온갖 수다를 떨며 빨래를 하는 아낙네들의 모습으로 소설은 시작된다. 빨래터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은 당연 여인들의 관심사이기 마련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청계천변에 사는 남성들의 스캔들에 관한 것이다.

“그럼, 우리 댁 영감마님허군 아주 판판이로구먼.”
한마디 한 말을 귀들어머미 재빨리 받아가지고,
“그럼 민주산, 아주 관철동 가서 사슈?”(…중략…)
“가서 사실 건 없어도 밤마다 가시긴 그리 가시니까 ……낮엔 늘 댁에서 사무 보시구.”(…중략…)21) “오, 그래 민주사가 그렇게 빼배 말렸군그래.”

“참, 만돌이 아버지는 요새두 관철동인가?”
하나가 옥양목 옷깃을 물에 흔들며, 생각난 듯이 한마디 하려니까, 저편에서 누가,
“아니, 관철동일니?” 하고, 우선 그 말부터 묻는다.
“아 그럼, 에어머닌, 입때 몰르구 있는 모양이군 그래? 만돌이 아버지가 관철동에 첩이 하나 생겼다우.”22)

“에그 저런 …… 그래, 그 얘길 이쁜이한테 들으셨어요?”
“여보, 딱헌 소리두 제발 좀 마우. 이쁜일 우선 만나야 얘기래도 듣는 게지. 온, 참, 천하에 인사라군 배워먹지두 못헌 집안에다 우리 이쁜일 쫓군그래. 그 저 신랑이란 녀석은 오입[오입]하느라 볼일 못 보지. 그년의 시에미라는 건 우리 이쁜일 그저 종년같이 부러먹기만 허느라, 제 사돈 마누라한테 인사 차릴 건 애상토 염두에두 없으니……”23)

21) 박태원, 앞의 책, 16쪽.

22) 위의 책, 99쪽.

23) 위의 책, 105쪽.

청계천변 빨래터에서 주로 얘기되는 소문은 첩 때문에 고민이 많은 민주사 얘기와 첩이 생긴 만돌 아버지가 만돌 어머에게 폭력까지 행사한다는 얘기, 그리고 시집 간 이쁜이가 바람난 서방 때문에 고생한다는 씁쓸한 내용의 소문들이다. 첩인 안성집이 학생과 놀아난다는 소문에 민주사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는 복잡한 심경이 빨래터 여인네들의 수다 속에서 그려지고, 바람을 핀 만돌 아버지가 오히려 만돌 어머에게 폭력까지 행사한다는 안타까운 정황들이 속속 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또한 시집간 이쁜이가 새서방의 오입에도 아무말 못하고 고된 시집살이를 하고 있다는 소문들이 전해진다. 이외에도 「천변풍경」 속 빨래터에서는 남성들의 스캔들 외에도 남편의 폭력에 쫓겨 올라온 시골 아낙에 관한 소문, 기생집에 팔려간 딸 덕분에 먹고사는 집에 대한 소문 등도 무성하다.

“아, 왜 필원이네가 밤낮 그러지 않았어? 저이 시골, 바로 한 이웃에, 그저 밤낮 제 서방한테 얻어만 맞구 지내는 젊은 여편네가 있대구. 그래 그동안 무던히 참어두 왔지만, 근래엔 딱 기집이 또 생겨 더구나 구박이 심해서 그대루 지낸단 수강 벗어, 어떻게든 자식 데리구 서울루나 올려갈까 허는데, 어디 남의집살 데 없겠냐구, 바로 요 며칠 전에두 편지를 했다면 그 예편네 말야.”²⁴⁾

“글세, 인물두 밍진 않은데, 이상허게두 그리 세월이 없다는군. 허지만 말야. 어디, 기생 수입이란, 놀음에 불려 댕기는 그것뿐인가? 지금 말헌 명월이만 어드래두, 아무럼, 한 달에 열 시간두 못불려 댕기, 대체, 맨밥은 먹게 되나? 그렇지만, 그 대신, 반해서 찾아다니는 작자가 있거든. 왜, 저, 은방 주인 말이야. 그 사람이, 아, 겨우네, 양식허구, 나무허구, 대주지? 옷 해주지? 작년 동짓달엔 김장 담가줬지?…… 다아 그런 속이 있거든.”²⁵⁾

이런 식으로 여인네들의 해소의 공간인 빨래터에서 얘기되는 소문은 같은 천변에 위치한 이발소에서 유포되는 소문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빨래터와 이발소에서 기층민들이 주고받는 소문들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측면도 크

24) 박태원, 앞의 책, 19-20쪽.

25) 위의 책, 22쪽.

지만 정서적 공유의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소문의 속성상 작중에서 인물들이 주고받는 불행한 이야기들은 인물들 스스로에게 자신들의 삶에 내재해 있는 위험들을 인식시키게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타인의 불행에서 동료의식을 느끼며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위안의 시간을 경험하게 한다. 『천변풍경』 속에서 말해지는 부정적인 소문들이 불행에 대한 자기 위안의 장치로서도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천변풍경』 속 남성들이 일으키는 스캔들은 가부장적 남성들이 빚어낸 폭력적 일상이 1930년대 경성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근대식 연애관으로 무장한 신식남녀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한편에서 여전히 또 다른 여성들은 전근대적 남녀 관계가 빚어낸 비극적인 운명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성의 모습은 모순적인 공간으로 비치기까지 한다. 『천변풍경』에서 주고받는 소문에는 이처럼 변화된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남성들의 일상적 폭력이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한 가정의 해체가 이어지고 있는 불안한 사회상이 담겨 있다.

3.3. 근대화의 논리와 공간 상실의 불안

일제 강점기에 진행된 경성의 도시화는 조선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제에 의해 진행된 것이었다. 따라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근대화하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도시화에서 배제되는 부정적 측면들 또한 나타나기 시작했다. 『천변풍경』에서 불길하게 나돌고 있는 청계천 복개에 관한 소문 또한 1930년대 후반 도시화 되어가는 경성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청계천은 원래 조선 건국 시기부터 사람의 손에 의해 개천(開川)되어 인공적으로 관리돼온 천이었다. 그러다가 식민지 시기에 들어서 더 이상 준천이 힘들어짐에 따라 청계천 복개가 거론되었다. 1920년대 들어 서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결한 하천이 위생환경 악화의 주범으로 부상하면서 청계천 복개는 조선인사회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그러나 막대한 복개 비용 때문에 일제는 청계천 문제를 미봉책으로 일관했고 조선인사회의 불만이 고조되

었다. 그러다가 1930년대 후반 경성시가지계획이 발표되면서 청계천 복개가 가시화되었다. 당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청계천 복개는 조선인사회의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 채취한 것으로 의미가 컸던 일이었다.²⁶⁾ 이렇듯 청계천 복개가 조선인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개시된 것이기는 하지만 막상 청계천을 덮어버린다는 소문은 천변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다.

“더구나, 소문을 들으면, 뭐 청계천을 덮어버린단 말이 있지 않아? 위생에 나쁘다던가…… 그러니, 정말 그렇게나 되구 본댐야, 인젠 삼순구식두 참 정말 어려울 지경이니…… 흥! 말두 말어.”

하도 기가 나서 하는말에, 칠성아범은 잠시 담배만 뽁뽁 빨고 있다가, 새삼스러이 개천을 둘러보고,

“그게, 다 괜한 소리…… 덮긴, 말이 그렇지, 이 넓은 개천을 그래 무슨 수루 덮는단 말이유? 온, 참…….”…(중략)…

“그렇게 됐다간, 참말 굶어 죽을 노릇 아냐? 쉬 무슨 도릴 채리긴 해야 헐 텐데, 그래 다소간에 돈이 있으니 장사를 허나, 기술이 있어 장인 노릇을 허나, …… 참말이지 큰일 났수.”²⁷⁾

청계천이 복개된다는 소문에 불안해하는 이들의 모습이다. 청계천이 복개되는 상황만으로도 돈도 없고 딱히 기술도 없는 하층민들의 삶은 뿌리채 흔들릴 정도로 그들의 존재기반은 약하다. 청계천변은 이전부터 주로 중인계층이 거주하던 곳으로, 카페, 이발소, 술집 등과 같은 근대적인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농촌이 해체되면서 상경한 농민들이나 도시의 빈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슬럼화된 장소이기도 했다. 청계천변으로 이주한 빈궁민들은 대부분 미숙련노동자들로 도시의 하층민을 형성했다. 따라서 이곳 거주민들의 주거는 불안정하고 이동 또한 잦았다. 따라서 청계천변에 살고 있는 불안정한 거주민들은 그들의 삶의 기반이 약한 만큼 내면

26) 엄복규, 『청계천 복개와 ‘1960년대적 공간’의 탄생』, 『역사비평』 제113호, 2015, 120~121쪽.

27) 박태원, 앞의 책, 168쪽.

또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삼순구식’하며 거의 굶다시피 하는 청계천변 하층민들은 청계천 복개 소문이 헛소문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한편으로 청계천이 복개된다는 것은 청계천과 함께 했던 그들의 시간이 단절된다는 얘이기도 하다. 청계천에 얽힌 수많은 그들의 이야기들이 같이 파묻힌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유용성의 의미로만 공간이 구성되어지고 있는 근대에 청계천이 복개된다는 소문은 청계천변을 근거지로 살고 있는 이들의 정서적 기반이 되어온 공간이 파괴되는 일이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삶의 양태를 변화시킬 일들과 관련된 소문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근대인들의 불안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3.4. 근대문화의 유입과 정체성 갈등

1930년대 근대적 도시 공간으로 변모한 천변에는 이발소, 카페 등 근대적 상점이 들어서고 사람들은 그렇게 근대화된 도시 공간에서 근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작중의 소문들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정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근대인들의 내면은 불안하다. 여성들의 행실은 보수적인 시선으로 검열 당하고 남성들의 스캔들쯤은 낯선 얘기가 아니다. 1930년대 경성 청계천변에 살고 있는 기층민들은 근대화된 도시 공간 속에서 근대의 합리성이 요구하는 사고와 행동 방식을 요구받는 근대인이면서도 그들의 실제 삶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질서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민감한 근대적 지식인들만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기층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계의 모습이다. 무너진 전근대적 가치관을 대신할 새로운 가치관은 모호하고 근대인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낯선 광경들과 조우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그래서 그들의 심경은 불안하다. 『천변풍경』 속 신식남녀의 연애에 대한 소문과 인식은 기층민들의 이런 혼란스러운 심경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동경서 갓 나온 한약국집 아들이, 역시 그해 봄에 ‘이화’를 나온 ‘신식 여자’

와 ‘연애’를 한다는 소문은, 우선 빨래터에서 굉장하였고, 이를테면 완고하다 할 한약국 집 영감이, 이러한 젊은 사람들의 사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질지는 의문이었으므로, 동리의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법 흥미를 가지고 하회를 기다렸던 것이나, 아들의 말을 들어보고, 한 번 여자의 선을 보고 한 완고 영감이, 두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뜻 결혼을 허락해준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그것으로, ‘영감’은 ‘개화’하였다는 칭찬을 동리에서 받았으나, 아들 내외의 행복에 대해서는, 껌쩍게, 남들은, 또 말들이 많아 ‘연애를 해서 혼인했던 사람들이 더 새가 나쁘더군.’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으나, 그들의 사랑은 참말 진실한 것이 듯싶어, 흔히 ‘신식 여자’라는 것에 대하여 공연히 빈정거리려고 싶어하는 동리의 완고 마누라쟁이로서도, 이제는 방침을 고쳐, 도리어 그들 젊은 내외를 썩 무던들 하다고, 그렇게 뒷공론이 돌게 된 것은 껌이나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²⁸⁾

위 인용문은 작중 소문의 유포자들인 기층민 여성들과는 다른 세계의 남녀에 관한 소문이 얘기되는 상황이다. 신교육을 받은 두 남녀가 자유연애를 하고 신식 결혼까지 한다. 주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완고 영감’인 남자의 아버지도 신식 여자를 만나보고 나서는 선뜻 결혼을 허락한다. 오히려 주변 ‘완고 마누라쟁이’들이 더 의아해한다. 근대적 시공간이지만 아직은 낯선 신식 남녀의 연애와 결혼은 ‘완고’한 이들에게는 낯선 모습일 뿐만 아니라 가치 판단이 서지 않는 행위이다. 그래서 빨래터 아낙네들은 ‘완고 영감’의 처분을 궁금해 하며 기다리던 터에 그의 결혼 허락이 떨어지자 의아해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한다. ‘신식 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그들의 연애와 결혼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상의 정황이 근대의 신식남녀를 이해하게 되는 기층민들의 모습이다. 그들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변화시켜가는 근대의 모습을 기층민들은 혼란스러움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그들은 낯선 신식남녀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가치관도 재정립해나간다. 이 소문이 생명력을 지니고 유포될 수 있었던 것은 신식남녀의 자유연애와 신식결혼에 대한 흥미로움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점은 ‘완고 영감’의 행위

28) 박태원, 앞의 책, 38쪽.

때문이다. 그의 행위는 변화된 사회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체계가 정립되어지지 않은 시기의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판단의 준거를 제공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천변풍경」은 이처럼 소문을 통해 근대와 전면적으로 마주한 근대적 주체들이 겪게 되는 혼란, 즉 근대적 주체들이 경험한 근대적 일상과 그들의 기존 가치체계와의 갈등이 빚어낸 균열들을 개별적인 사건들을 통해 봉합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불안한 근대인의 심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4. 나가며

「천변풍경」속에서 각종 소문들은 천변에 사는 기층민들의 입을 통해 떠돌아다닌다. 소문의 직접적인 당사자들과는 무관하게 온갖 소문들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그 소문들이 소문을 유포하는 이들에게 유용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용성이 있다는 것은 소문이 단순한 재미나 사교의 목적, 혹은 별다른 목적 없이 가볍게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소문에는 중요한 목적과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이다.²⁹⁾ 말하자면 소문은 유포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화젯거리인 것이다. 이는 유포되는 소문들이 소문의 유포자들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으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소문들이 도구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포되는 소문들이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불행한 여인들의 얘기는 빨래터 여인들 자신들의 얘기와 닮아 있고,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의 모습도 낯선 모습이 아니다. 가난한 여인들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남의 일이 아니다. 남부러울 것 없었던 부자들마저 시대를 잘못 읽어 돈을 잃고 귀향하는 모습은 가난하기만 했던 그들에게는 더욱 위기감을 준다. 이렇듯 소문의 대상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소문을 유포하

29) 니콜라스 디폰조·프라산트 보르디아/신영환 역, 앞의 책, 29쪽.

는 그네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고, 그네들에게 닥쳐올 위협을 예감하게 한다. 그래서 『천변풍경』에서 사람들의 불안이 반영된 소문들은 더 생명력을 얻어 떠돌아다닌다.

『천변풍경』에서 유포되고 있는 소문이 보여주듯 사회 구성원이 불안하다는 것은 그들이 인식하는 세계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작중 유포되는 소문의 성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소문은 모호하거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소문은 구성원들에게 모호한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 불확실한 상황에 처한 개인은 집단 속에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이때 소문이 ‘집단사고’로 기능한다.³⁰⁾ 그렇게 개인은 소문을 이용해서 불확실한 상황을 인식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소문에는 인간의 불안이 담겨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천변풍경』에서 얘기되는 소문은 그래서 근대인의 불안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안은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해소될 수 있다. 소문을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람들은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된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세상을 이해한다. 이렇듯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며,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문은 인생의 목표를 교감하는 인간 본연의 활동이며 세상을 함께 이해하는 탁월한 수단이 된다.³¹⁾ 따라서 『천변풍경』 속 빨래터에서, 이발소에서 얘기되는 소문은 근대인들의 불안이 반영된 것이고, 동류의 사람들과 소문을 얘기하는 행위는 불안한 근대인이 상호작용 속에서 각자의 정체성을 성립해나가며 불안을 해소하는 행위가 된다.

30) 니콜라스 디폰조·프라산트 보르디아/신영환 역, 앞의 책, 25쪽.

31) 니콜라스 디폰조/곽윤정 역, 앞의 책, 9-10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박태원, 『천변풍경』, 문학과지성사, 2005.

2. 단행본 및 논문

김정동, 『문학 속 우리 도시기행』, 옛오늘, 2005.

김정현·김태영, 「소설 『천변풍경』 속에 나타난 1930년대 청계천 주변 서민 생활공간」,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구조계』 제27권 1호, 2007.

김태진, 「박태원 소설의 공간 구조 연구: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천변풍경』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김현준, 『행복심리학』, 아름다운사람들, 2010.

니콜라스 디폰조/곽윤정 역, 『루머사회』, 흐름출판, 2012.

니콜라스 디폰조·프라산트 보르디아/신영환 역, 『루머 심리학』, 한국산업 훈련연구소, 2008.

류수연, 「박태원의 고현학적 창작 기법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신재은, 「1930년대 소설의 지리시학적 연구: 『인간문제』와 『천변풍경』의 공간 재현 방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염복규, 「청계천 복개와 '1960년대적 공간'의 탄생」, 『역사비평』 제113호, 2015, 120-121.

이정옥, 「박태원 소설연구: 기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장영미, 「세대소설과 세계 인식 모색: 박태원의 『천변풍경』과 박완서의 『천변풍경』을 중심으로」, 『구보학회』 제9집, 2013.

천정환, 「박태원 소설의 서사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한스 j. 노이바우어/박동자, 『소문의 역사』, 세종서적, 2001.

【Abstracts】

The Landscape of Modern from the View Point of Rumor in the *ChunByunPoongKyung*

Eom Suk-hui

This study's purpose is to consider the landscape of modern from the view point of rumor in the *ChunByunPoongKyung*. The image of life in the Park Tae-won's *ChunByunPoongKyung* was varied and ever-changing. So, the riverside were full of rumors. The varied rumor in the *ChunByunPoongKyung* reflected the social conditions of the times. The rumor are built up everywhere and spread out. The rumor can be a useful tool which interpret human. So, the rumor were interpreted in the historical connections. In that sense, the meaning of rumor are not simple.

In that case, The rumor in the *ChunByunPoongKyung* are not still. That rumor was about unhappy woman and adultery of man. In the center, the rumor of love with new man and woman which received modern education made the humble classes more tragic. Like this, the rumor in the *ChunByunPoongKyung* were reflected internal consciousness of modern people which were living in modern urban space.

Key words: *ChunByunPoongKyung*, Park Tae-won, Rumor, Landscape of Modern, Collective Internal Consciousness's Projection, Uneasiness

이 논문은 2016년 2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3월 2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3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